

18살이하·여성 실업 급증

지난해 실업률 2.8%...불완전 취업자도 2백만명

지난해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되자 서둘러 경공업분야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섬유·신발 등 업종이 몰려 있는 부산·대구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졌고, 경공업의 주력 노동층이던 여성노동자들의 실적이 늘어났다. 기업들은 그 다음으로 임시직을 정리했다. 또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퇴직을 종용했고,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냈다.

자연히 기업들은 남은 노동자들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한편, 자동화·생력화투자를 통해 노동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값비싼 대졸노동자들은 고용되기 어려웠다.

반면 제조업에서 실직한 노동자들과 광산·농촌 실직자 등은 주로 서비스업 분야로 몰렸으나, 구직이 마땅치 않은 탓에 상당수가 가족 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월급

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동향은 이러한 경기침체기의 전형적인 고용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도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지긴 하겠지만,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사정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은 2.8%(55만1천명)로 92년의 2.4%(46만4천명) 보다 0.4%포인트(8만7천명)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침체로 주력 노동층인 19~59살의 남자보다 18살 이하(-14%) 60살 이상(-0.1%)의 비주력 노동층의 실직과 여성노동자(1.3% 증가)의 취업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대졸실업률

도 4.1%(14만1천명)로 92년 대비 0.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1천9백75만4천명으로 92년보다 36만9천명(1.6%)이 늘어났으나, 취업자는 1천9백20만3천명으로 28만2천명(1.5%)밖에 늘지 않았다.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고용여건이 좋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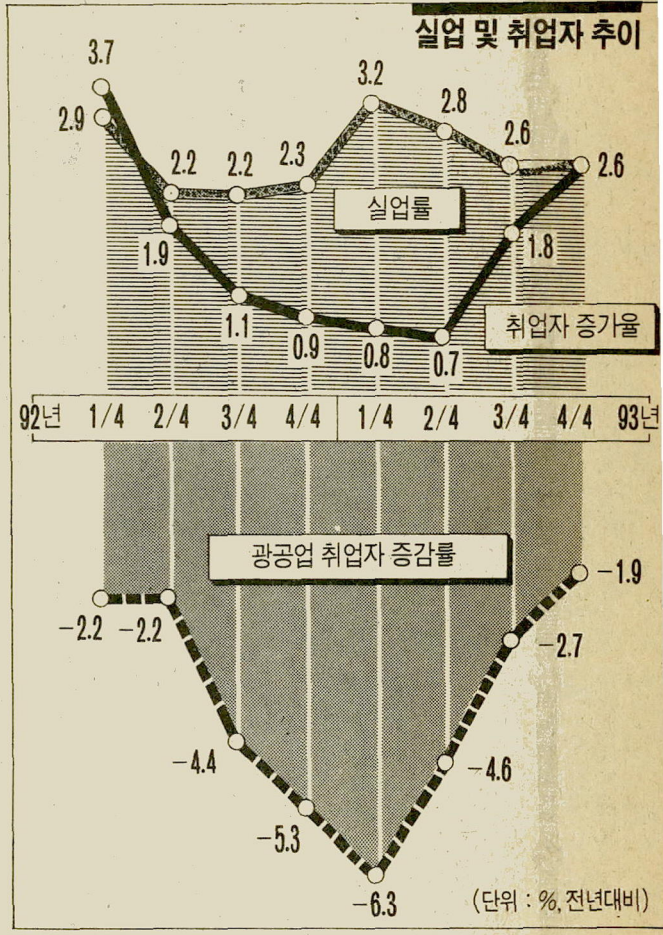
분야별 고용동향을 보면 농림어업(2백84만5천명 : -6.0%)과 광공업(4백63만7천명 : -3.9%), 제조업(4백58만3천명 : -3.7%)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 중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 경공업 중에서도 섬유류(-12.3%), 의복류(-10.2%), 가죽 신발류(-25.2%)의 고용감소가 가장 많아 이들 세 분야에서만 20만5천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공업은 기계장비에서 8.3%, 자동차류에서 26.0%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의 양극화가 고용부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경공업에서 실직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분야(1천1백72만2천명 : 5.9% 증가)로 흘러들어갔는데, 특히 도산매음식업은 무려 41만4천명(9.4%)이 늘어난 4백83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친척이 경영하는 업소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불완전취업자가 됐다. 이렇게 실업자의 딱지만을 떼 무급가족종사자는 여타 분야를 합쳐 92년에 비해 4.0%가 늘어난 2백5만4천명에 이르렀다.

반면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일부 비주력노동층을 해고하는 대신, 주력수련



노동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주당 35시간 이하 근무자가 꽤 감소한 반면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 주당 취업시간은 평균 0.2시간 늘어났다.